

동부권 주요 거주지 경유 시내버스 운행

전주시, 다음달 20일부터 전북대 출발 되는 양 방향 8·1·8·2번 순환노선 신설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명주골네거리와 노동사무소, 중앙여고, 동부시장, 중앙시장, 금암광장 등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권 주요 아파트단지들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60년만에 처음 운행된다.

이는 전주·완주 시내버스가 노선개편을 통해 다음달 20일부터는 기존 팔달로 단일축에서 백제대로를 포함한 6개축으로 확대된다. 따른 것으로, 전북대를 출발해 명주골네거리~노동사무소~중앙여고~동부시장~중앙시장~금암광장 등을 거쳐 전북대로 다시 돌아오는 양 방향 8·1·8·2번 노선이 신설된다.

이중리·인후동에서 전북대까지 최단거리 노선인 8·1·8·2번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됨에 따라, 전북대학교 학생 등의 통학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노선개편 안내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인후동과 우이동에서 시내방향으로 가기 위해 3·1·3·2번 버스를 이용하면, 모래내시장 등을 경유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8·1번 신설노선을 이용하면, 노동동에 서 팔달로까지 한 번에 연결돼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시는 8·1·8·2번 시내버



“우리도 고향가고 싶어요” 26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태워줄 것을 기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 버스는 장애인의 탑승이 용이한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결국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지 못했다.

스가 생기면서 3·1·3·2번 버스 이용객들의 수요가 일부 분산돼,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설 100번 시내버스가 매 15분마다 운행되는 만큼, 평화동과 중화산동, 서신동 등 백제대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전주역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신설노선은 전주시내버스 순환노선 중 최단거리 노선이자, 금암

광장과 중앙시장 대학병원 입구 등 주요환승지를 경유해 이중리 및 노동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리한 환승을 통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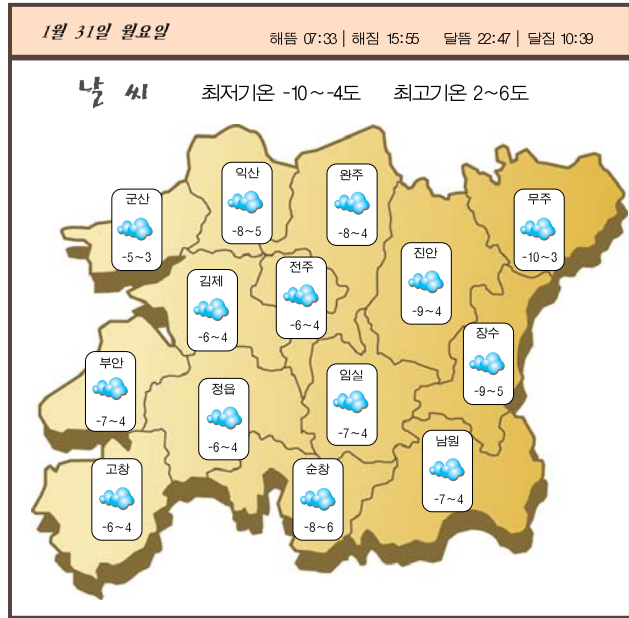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달라도 노선개편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세한 노선도가 실린 40여 페이지 분량의 노선안내도 소책자를 15만부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에서도 시간선제 우선시행지

역인 심례와 봉동, 이서지역의 병원, 상가 등 다중집합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106개 농어촌 어울림학교 17억원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106개 어울림학교에 총 17억원을 지원해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106개 학교를 △작은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협력형 △테마형 △공동동화구형 등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1교당 500만원에서 3,900만원까지 총 17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어울림학교는 현재 88개 학교이나 올해 추가로 8개를 지정, 총 10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전북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전년보다 한계단 상승한 2등급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2위를 기록했던 전라북도교육청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마다 전국 2백66개 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노력과 성과를 기관 유형별로 평가하는데,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2등급(우수)로 평가되어 오다, 전년도 3등급(보통)으로 한단계 떨어졌으나 금년도 다시 한 계단 상승했다.

도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중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2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

청렴개선 효과 등 4개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부패방지제도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운영 불이행에 따른 감점도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부패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청렴 문화가 교육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외부청렴도 80.7점, 내부청렴도 8.16점, 정책고객평가 6.88점 등 종합청렴도 7.91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2년 이후 5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해은기자

완주 고산고, 올해 신입생 76%가 지역출신

농어촌 학교들이 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완주 고산고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비평준화 일반계 고교인 완주 고산고는 2017학년도 입학 전형을 통해 신입생 25명을 선발했다. 이 학교의 모집 정원이 50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는 다소 불만될 수 있지만 내용은 알차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근 고산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점이다.

실제 신입생 25명의 출신 중학교를 살펴보면 고산중 출신이 19명으로 전체의 76%에 달한다.

완주관내 다른 중학교 출신이 2명이고 전주에서 중학교를 나온 학생



은 4명이다. 이처럼 지역 출신과 성적 상위 학생들이 대거 고산고를 선택한 것은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오래 전부터 펼쳐 온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는 평가다.

이 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종재 교사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올해 지역출신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면서 “여기에 2월 추가모집을 앞두고 7~8명이 입학 문의를 해왔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정원의 선별확장까지 포함하면 3월 개학할 때는 신입생이 40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올해부터 초등1학년 문자 지도 대폭 강화

올해부터 초등 1학년생에 대한 문자 지도가 대폭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 개정교육과정 등에 따라 초등학생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초등 1학년 문자지도도를 종래 27차시에서 62차시로 늘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입문기 학생들이 사전에 문자를 배우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문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1학년 1학기까지는 받아쓰기나 알림장을 쓰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1학년 담임교사의 문자 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또 학습 더듬 학생에 대해선 돌봄교실 등을 통해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과 방학 중 문자 해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